

## 바다오염원으로서의 강

- 1 자치단체 : 연해주지방
- 2 발표자명 : 에레나·키세레프스카야 (Elena Kiselevskaya)  
(스파스크·다리니이시 청소년자연연구소)
- 3 활동명 : 연구활동
- 4 활동기간 : 2011~2012년
- 5 활동장소 : 우스리스크시, 키로프스키지방, 웃스리강, 라즈도리나야강
- 6 활동인원 : 1명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강이 해양환경의 오염원이 된 문제가 걱정이 되었다.

### 8 발표요지

깨끗한 바다는 인간에게 있어 여러가지 자원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여러가지 오염물질을 운반하고 있다. 동해쪽으로 흘러가는 거의 대부분의 강이 거의 모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긴급한 과제로 삼았다.

조사시에 다음 가설을 설정했다. 강은 해양환경의 주된 오염원이다.

연구의 목적은 아무르강, 라즈도리나야강, 웃스리강을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서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해주의 강물과 3억m<sup>3</sup>의 미처리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아무르강 만해도 동해쪽으로 매년 25만톤 이상의 오염물질을 운반한다.
2. 강물과 함께 고형폐기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도 함께 운반된다.
3. 수질기준에 적합한 강이 하나도 없다.
4. 고형폐기물은 강에 퍼져서 좁은 곳에서 축적된다. 또한 강의 흐름에 따라 해양으로 운반되어 하구갯벌에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다.
5. 많은 과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국경을 초월한 오염수의 전체량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6. 사고 등의 경우 유독한 폐기물, 미처리 오수가 자주 흘러나온다.

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강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감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지역, 마을, 시민의 휴양지에는 폐기물의 수집 및 분별이 가능한 장소를 설치한다.
2. 오래된 폐수처리 설비를 새로운 것으로 교환한다. 폐수를 직접 강에 버리는 지역에서는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3. 강주변의 불법투기를 배제한다.
4. 강주변의 쓰레기 줍기, 강속의 쓰레기 건지기 등에 지역 주민들이 참가하도록 한다.
5.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세차에 대해 처벌을 도입한다. 경사면 지형이기 때문에 오염수가 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강에 의한 해양오염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바다에 면해있는 나라에도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